

오리농 쌀 土雇米로 도·농 녹색교류를 ...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를 찾아서-

최동주 박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처장)

신대리의 초가집 지붕 올리기를 도·농 교류차원의 행사로 진행한다는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최수명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일주일 후 미래가족문화연합 임원들과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를 찾은 것은 3월9일(토) 오전11시30분경 이었다.

서울에서 팔당댐, 양수리, 청평댐, 춘천댐을 경과하는 호수를 낀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면서 126km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천까지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우선 화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화천군의 농업 개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화천군은 휴전선에서 30Km 떨어진 내륙지방으로 겨울이 춥고 길며 여름철 폭우가 심하지만 주변에 공장 및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기농업의 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한다. 6월에 비목문화제의 개최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군사지역인 관계로 장병 면회객이 많은데 이들에게 고향의 음식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면회문화로 도·농 녹색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수명 선생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내 온실로 우리 일행을 안내하여 화천지역의 야생화와 허브재배에 대한 설명하였다.

이 곳에서 15분간 철원방향으로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土雇米마을로 더 잘 알려진 신대리였다. 이곳은 논이 넓어 예전부터 품값을 쌀로 받았다 하여 이 쌀을 土雇米라고 하였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신대리 노인정으로 안내되어 이 지역에서 재배

한 콩으로 만든 두부와 된장찌개로 점심식사를 했다. 일행은 모두 음식맛에 반해 두 번씩 밥그릇을 비운 후에야 일어서서, 오리쌀 작목반 총무의 안내로 마을을 한바퀴 돌며 마을 현황을 소개받았다. 아담한 폐교는 마을에서 임차하여 향후 농촌체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며 4,500만원을 들여 개축한 마을회관은 이장 사무실, 건강관리실, 황토방, 농업정보화실, 회의실, 공동민박, 교육장 등 다각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홈페이지(www.sindae.org)를 개설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을 찾아와 교류하는 도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마을은 82호 중 58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 인구는 남자가 214명, 여자가 184명, 총 39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의 인구적 특성은 30~40대의 젊은 영농주가 전체 영농주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단합은 물론 생동감 있는 마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경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논이 53ha, 밭이 35ha로 농의 면적이 더 넓은 것이 특징이다. 마을 앞에 냇가(파포천)가 있어 수량이 풍부하여 오리쌀 재배에 적합하다고 한다. 무농약 오리농쌀(품종: 오대미)은 5년 전 한상열 작목반장이 위암수술 후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위해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는 31농가가 참여하여 30ha의 논에서 104톤의 쌀을 생산하여 약 3억2,500만원의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오리는 대개 6월 초순에 논에 입식되어 2개월 반 후

에는 처분하지만 마을 대로를 들어서서 마을 안길 가꾸기 사업으로 목향과 맨드라미가 심겨져 있는 정겨운 길을 지나 마을하수처리시설(50톤/1일)과 지나 논에 이르렀을 때 아직도 논 귀퉁이에 지어진 오리집에는 아직도 오리가 농가의 식용으로 사육되는 곳도 있었다. 오리 쌀은 자체상표(토고미 오리농 쌀) 및 포장재를 개발하여 토고미 가족(예약 회원제)에게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토고미는 6월에 오리입식 시 오리 한마리 가격(3만원)을 내면 가을 추수후 4Kg 쌀 2포를 증정한다고 한다.

즉 토고미 80Kg 1가마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1.5배정도 비싸지만 가족 1인당 1년간 한끼에 100원정도 비싸므로 가족의 건강과 밥맛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이 관행농법보다 30%정도 감소하지만 가격이 1.5배정도 되므로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한다. 오리농법논을 둘러 보고 동화에 나온직한 아름다운 한상열 작목반장의 집에 들어서자 그의 부인과 모친이 한과와 따스한 한방차로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한 작목반장은 무농약 오리쌀의 계약재배를 원하는 도시소비자를 회원이라는 명칭 대신에 가족이라고 부르며 가족간의 관계는 금전적인 면보다 인간적인 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고 스스로를 가장이라고 칭하며 10일마다 도시의 가족들에게 신대리 고향 마을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토고미환경농업 가족」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12일부터 1박2일로 신대리에서 행자부가 지정한 아름마을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데 교육은 마을 회관에서 숙식은 12곳의 민박에서 실시한다며 자신의 집에서도 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듣고 흥월표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있는 신대리 토고미마을

미가연 회장은 앞치마 12개를 특별히 제작하여 선물하기로 한상열 작목반장 부인과 약속을 하였다.

우리는 다시 마을 大路를 되 집어 나와 마을 어귀에 있는 전통초가집에 도착하였다.

초가집의 지붕은 말끔하게 새로 단장 되어있었고, 내부에는 호미, 낫, 지게, 숯 다리미, 다듬이돌, 풍구 등 전통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전시되어 있었으나 방안의 벽지를 신문지를 발라놓아 약간 어수선했으나 소박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신대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 녹색교류 프로그램은 오리입식 축제(6월6일 예정), 다슬기 줍기(9월 중), 메주 만들기(11월 중), 초가지붕 올리기 및 봄나물 캐기(3월초순), 장 담그기 및 쭉 뜯기(3월 하순) 등이 있다. 향후 폐교를 이용한 농촌체험학교의 연중 운영과 마을 가꾸기 사업, 민박 확대, 토고미 가족의 확보를 통해 도·농 녹색교류를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오후 4시경 우리 일행은 신대리 마을 주민의 따스한 환송을 받으며 서울로 향했다. ☺